

2020년 12월 9일부 COVID safe 전례 지침

미사 때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음을 의미합니다:

- 본당은 COVID-safe 등록을 하고 COVID-safe Plan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 본당은 미사와 실내 행사 참석자 숫자에 관하여 2제곱미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성전(혹은 다른 건물)의 면적을 미터법으로 구한 뒤 2로 나누어 참석자의 상한선을 계산한다.
- 야외미사,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역시 2제곱미터 규정을 따른다.
-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건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각 건물은 동일하게 2제곱미터당 1명 규정을 적용한다. 성전과 미사를 봉헌하는 다른 건물에는 각기 별도의 COVIDsafe plan이 있어야 한다.
- 사제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은 미사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인원 제한이 늘어났지만, 본당은 평소보다 미사를 더 봉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성탄 대축일에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성전 안, 보다 큰 강당 안, 그리고 야외 미사를 함께 병행할 수 있다.
- 가능한 곳에서는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전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개인 기도를 위해 개방된 경우 입구에 세정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셀프 체크인을 위한 QR 코드 또는 방명록을 마련하여 역학 조사(contact tracing)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정부의 역학조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해진 미사 시간에 계속해서 사전 등록 혹은 현장 등록을 해야한다.
- 이제 회중과 성가대에 의한 노래 부르기가 허용된다. 실내에서는 성가대가 50명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야외에서는 성가대 단원 수 제한이 없다. 성가대원들은 앞을 향하고, 단원들끼리 1.5m, 다른 회중과는 5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키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미사 거행에서, 교우들의 특성과 전례 회중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노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평일 미사에서는 그 성격상 노래로 불러야 하는 전례문을 반드시 모두 노래하지는 않더라도, 주일과 의무 축일에 지내는 미사에서는 봉사자들과 교우들의 노래가 빠지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노래할 부분을 고를 때는 더욱 중요한 부분, 특히 사제나 부제나 독서자가 부르고 교우들이 화답하는 노래, 또는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먼저 골라야 한다. (로마미사경본 총지침 40항)

물체와 표면 접촉, 비말 전염에 의한 COVID-19 확산위험을 줄이기 위한 특정한 조치들은 현재 약간의 수정사항과 함께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권장된다.
- NSW Health는 사람들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다.
- 성수는 여전히 성당 문 근처의 성수대에서 치워져야 한다. 다만, 성수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용기에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일 미사에서 성수를 축복하고 뿌리는 예절은 적어도 정기적으로 권장된다.
- 성가 책, 주보, 헌금 바구니의 전달(사람과 사람의 전달)과 같은 관행은 아직 다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본당이 시행한 대안적 조치(예: 헌금 수거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 직접 바구니를 들고 신자들 사이를 이동하는 것, 봉헌함을 적당한 위치에 놓는 것, tap and go, 전자 बैं킹과 인터넷 기부를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것 등)를 계속해야 한다.
- 미사에서 예물 행렬(‘봉헌 행렬’)은 아직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빵과 포도주가 든 그릇은 손을 소독한 사람이 미사 전에 준비해야 한다.
 - 그릇은 열려있지 않고 닫혀 있어야 한다.
 - 그릇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예물을 가져와서 사제에게 바치기 전에 손을 소독해야 한다.
- 사제들과 부제는 평화의 인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평화의 인사를 하는 곳에서는, 당분간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들 사이에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지 않는 행위로 유지해야 한다.
- 사제들, 부제들, 시종들 그리고 거룩한 영성체의 비정규 봉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그들은 성체를 분배하기 전에 손을 소독해야 한다.
- 신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영성체를 성작으로 전해주는 것은 계속해서 중단된다. 공동집전 사제들과 부제들은 주례사제가 영하는 것과는 다른 성작에서 찍어서 영해야 한다.
- 거룩한 성체를 손으로 모시는 것은 라틴 예법의 평범한 형태이며 이 시기에 계속 장려된다. 만약 혀로 성체를 영해주어야 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서 가장 마지막에 영해줄 수 있다.

다른 성사들

- 세례, 견진 그리고 병자성사의 도유 때에 면으로 된 면봉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지역에서 COVID-19의 감염율이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전례 규제들이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